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공현 대축일
제37권 7호(가해) 2017년 1월 8일

[묵상]



멜키올(Melchior), 발다살(Balthasar), 가스팔(Casper)

삼왕은 별을 보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섰다.

우리는 어떠한가?

이웃 사람들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또 가난하고 힘없는 불쌍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삼왕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

그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

과연 우리는 영세 받고 난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방마다 십자가를 모셔 놓고 있다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또 우리는 기꺼이 자신이 가진 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가?

-오-

petrus3@hanmail.net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꼭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7,4358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7,4358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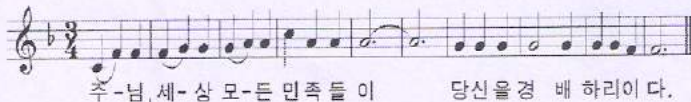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7,4358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생)이원형 프란치스코 가정
주일 학생	(연) 황대연 (생) 이미에 카타리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민경완 스테파노,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광진, 현시영 요셉, 김복남 마리아 & 김차욱 요셉, 오원순 안나, 박영석 요셉, 이필수, 송기문 수산나, 이용관 베드로 & 이종희 요셉, 한대동 요한 & 윤인숙 마리아나, Bob Polk, 윤희중 (생) 박정미 클라라, 황윤재 베드로 가정, 안나희 회원들, 윤안도니오 & 세라피나 대자녀들, 박정순 토마스 아퀴나스 하버카슨 구역가정들, 민 토마스 무어, 이문수 & 신제임, 최석원 안드레아 & 박민아 로셀리나가정,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송율리안나 & 이베드로 & 이야고보,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강동욱 세례자 요한사제,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0,1-6

하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
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
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외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3,2.3.5-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1-12

영성제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3. 한국 교회의 쇄신(1962-1984년)

3-1. 교계 제도 설정과 교회 쇄신

1970년대 이후 신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이 시기에 입교한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산층 지식인들이다. 1970년대 이후에 전개된 천주교의 정의 구현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당시 교회 일각에서 실천하던 정의 구현 운동에 적극 동조하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제 비판적 성향을 가진 일단의 타교과 청년들이 천주교로 집단 개종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중산층 신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회는 청년 지식인들로 더욱 활기찼고, 경제적 기반도 강화해 갈 수 있게 된다. 반면 사회 비판 의식이 강한 새 신자들이 교회 일각에 존재하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새로 입교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탈락되어 갔다. 물론 냉담자와 주소 불명자의 증가는 당시 활발히 진행되던 산업화와 도시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는 당시 교회가 드러내던 정의 구현의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의 한국 교회는 대규모 신앙 대회를 통해 쇄신의 노력을 계속한다.

< 계속 >

<표 7> 현대 한국 교회 현황(1962~1999년)

연도	신자 수	전년대비 증가율 (%)	본당수	성직자		수사		수녀		신학생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	小	大
1962	530,227	7.67	275	298	251	55	43	1,099	135	360	314
1965	668,348	6.49	313	353	283	74	34	1,875	183	356	465
1970	788,082	1.17	415	530	369	84	28	1,958	192	356	609
1975	1,052,691	4.00	480	709	294	157	37	2,531	192	295	791
1980	1,321,293	6.02	589	916	250	159	38	3,011	158	-	528
1984	1,848,476	8.01	673	1,094	221	210	36	3,705	226	-	925
1985	1,995,905	7.97	692	1,130	234	242	31	3,757	170	-	1,015
1990	2,750,607	5.25	855	1,504	201	326	21	5,215	184	-	1,528
1995	3,451,266	3.36	1,017	2,208	203		930		7,209	-	1,558
1999	3,948,844	3.80	1,190	2,726	201		1,170		8,551	-	1,547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02	102	102
봉헌	256	256	265
성제	299	299	285
파견	142	142	142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떠납시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높고 푸른 겨울밤 하늘, 종종히 빛나는 별들 중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알아봅니다. 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이, 경배를 드릴 유다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립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식까지 죽인 헤로데 왕은 당황합니다. 이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알아본 다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부탁합니다. “가서 경배해야 할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

물론 이는 별이 나타난 때에 태어난 아기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태어날 아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치되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왕권에 노예가 되어 탄생한 아기를 제거하려는 헤로데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탄생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는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새해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집니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춥니다. 이를 본 박사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갑니다. 하느님께서도 자기라는 것에 갇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으셨는지 그를 피하도록 인도합니다.

성령께서는 2017년 새해 벽두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떠나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떠났듯이....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나를 끝까지 사랑과 용서로 비추시는 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옴아매고 노예화 시켰던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지나친 집착, 탐욕, 욕망 등)이었다면, 거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 만큼 자유가 나를 감쌉니다. 내 안에 평화가 스며듭니다. 때로는 그 어떤 미련이, 허전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빛이 채워집니다.

오늘 독서의 한 부분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마음을 활짝 열고 힘차게 떠납시다. 주님의 인도 안에서 축복의 한 해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아직도 난,

요즘 좀 바빴던 딸을 위해
여든 넘은 엄마가 김장을 해서 서울에서 오셨네.
엄마는 하느님이고 자식은 저승사자 같아라.
엄마께 한없이 바라고 징징거리다가
마침내 원망까지 일삼네.
그러면서도 자식 앞에선
잘못한 것 없이 불안하여
안절부절 눈치 보며 작아지니.
엄마는 가엾고 저승사자로만 너를 보고 있는 난
참으로 막해라.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박혜경 레나타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공헌 대축일

오늘(1월8일)은 '주님 공헌 대축일' 입니다.
'주님 공헌 대축일' 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1월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1월9일(월)은 '주님 세례 축일' 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2월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 26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목)저녁7시30분

요셉회 2017 설날 대잔치

- 일시: 1월 15일(주일)11시 미사후 강당
- 일정 : 오찬후 민속놀이, 노래자랑, 경품추첨
- 요셉회원(필히 부부동반), 65세이상 요셉회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주일학교 신입 복사단 모집

- 자격 : 첫 영성체를 한 3학년이상 주일학교학생
- 신청서 : 사무실
- 신청마감 : 1월29일
- 문의 : 이인석 비오 (213)258-8665

주일학교 견진 1 반 피정

주일학교 견진반 학생 17명이 피정에 참가할 예정 입니다.

- 일시 : 1월 27일~29일
- 장소 : Temecula, CA

한국학교 2016-17년도 1학기말 시험 실시

- 일시 : 1월 22일 2교시
- 장소 : 각 반별로 진행
- 시상식 : 1월 29일 10시 미사 중

한국학교 2016-17년도 2학기 등록 접수

- 일시 : 1월 22일, 29일 (29일까지 20% 할인 혜택)
- 장소 : 한국학교 교무실

* 접수는 각 반별 정원제이므로 선착순 접수됩니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cks@gmail.com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 8일: 김밥 및 라면 (PV)
- 1월 15일: 배추국(PV3반)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광일 김교복 김민석 김순옥 김현숙 박인식 박진수 방정복 송영미 송재훈 양영자 오일순 윤희동 이근모 이인석 임의웅 장영우 장원철 장은희 최지영 최태훈 한장환 허정자 의 명	성전헌금	구자운 김광일 김교복 김현숙 박인식 방정복 양영자 이근모 이인석 장영우 장원철 최지영 최태훈 한장환 허정자
	합계:\$ 2,820		합계 : \$710
주일미사헌금 :\$3,144	구유예물:\$303	감사헌금 :\$100(김범주)	2차헌금 \$356
광고비 : \$370		성물판매이익금: \$808.50	

◆청소년 분과 봉사자 모집 공고

백삼위 한인 성당의 주일학교, 한국학교의 발전은 교우 분들의 작은 기도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성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ecks@gmail.com

남가주 소식

◆1월 말씀과 함께하는 피정

말씀과 함께하는 피정은 성경을 집중하여 읽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있는 신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언제 : 2017년 1월 14일 오전 10시 ~오후 5시
- 어디서 : 남가주 가톨릭성서임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주제성경 : 에제키엘 예언서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개인컵, 회비(\$10) 미리신청- 점심준비
- 신청 : 714)521-1345

◆ 송봉모토마스 모어 신부님 성경 학교

- 주제 : "생명의 주님을 찬미 하며" -요한 복음 5-9장
- 강사: 송봉모 신부님(예수회 소속)
- 일시 : 1월 20일(금) 7:30pm 미사 후
1월 21일(토) 7:30pm 미사 후
1월22일(일) 2:00pm
- 대상: 모든신자와 일반인, 신청비: \$30
- 장소 :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7655 Trask Ave., Westminster, CA 92683
- 사무실 714- 897-6510 x100

◆ 이나시오성인 영신수련 4박5일 침묵 피정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KCLC)
- 지도: 이재욱 신부(예수회)
- 일시 : 1/18/2017(수)~1/22/2017(주일)
- 마감 :1월18일 2017년
- 장소 :Pri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s Rd. Oceanside, CA 92058
- 문의 :하세실리아(323)578-2230
정요세피나(213)598-6344

◆ 우편 또는 동영상 강의를 이용한 성경공부

- 과정 : 구약과 신약 입문과정(2년)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분
- 접수 : 2016 11월~2017년 1월말
-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이태옥 아가다 01/9(월)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한창주 요아킴 01/14(토) 오후6시 성당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1/20(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이병찬 안토니오 01/14(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윤화경 바오로&실비아 01/14(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01/21(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정문주 프란치스카 01/20(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01/16(월)오전11시 성당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재용 안드레아 01/3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병태 요셉 01/16(월)오후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팜스프링 현대리조트 01/14(토) 오후2시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혜나 베네딕타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01/13(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01/14(토)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김병록 요셉 01/13(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01/10(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요셉회	1시
-----	----

기도

어느 날 병원 외래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 여자 환자 한 분이 급하게 달려와서 “수녀님,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는 유방암을 앓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엉겁결에 “의사 선생님께 가서 진료받으세요” 하고 곧 돌아서서 내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환자가 생각이 납니다. 왜 나는 그분이 바라는 대로 기도를 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선수들 안에서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다 바쳐 단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하였기에 지금 저 정상에 우뚝 서 있게 되었을까? 하면서 감탄과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수녀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전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평생 동안 바쳐진 나의 시간들.... 기도에 바쳐진 수련과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분명히 기도의 전문가가 되었어야 마땅할 텐데....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 지붕 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때에 큰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는 그 통나무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구해 주시겠지 하고 보트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밧줄도 잡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하느님께 가서 왜 나를 구해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세 번이나 너에게 살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몽골의 겨울은 아주 춥습니다. 두꺼운 코트도 추위를 막지 못합니다. “아! 털가죽 코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선물 박스가 왔습니다. 박스를 열어 보니 거기에 가죽 털 반코트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옷이 나에게 꼭 맞는다고 했고, 이렇게 저는 가죽 코트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망과 필요를 아시는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 만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성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행운으로, 어떤 때는 고통으로도 오십니다. 이런 것이 모두 지나고 보면 모두 다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묵상하며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 마리미셀 수녀/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대구관구/몽골선교)

[길을 찾는 그대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끊고 싶은데, 며칠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듭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실 술을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 저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인데, 술만 좀 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술이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보다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중독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생활 전반이 안정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끊은 채로 혹은 줄인 채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회개를 회두(回頭)라고 불렀습니다. 머리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보듯이 내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행위 하나만 끊어내는 것을 넘어 왜 술을 마시게 되는지, 담배를 통해 무엇이 채워지는지와 같은 행위 이상의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전반을 살피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회두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돌아보는 성찰과 전반을 바꾸려는 노력,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왜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을까?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는 제가 주일을 잘 지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 곳도 많고, 행사도 많고, 생계를 위해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유다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기 바로 전까지의 꼭 하루를 말합니다. 이날에는 완전히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탈출 20,11)

안식일은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사밧(sabbath)’에서 유래되었으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신명 6,7)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 들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쉬면서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업적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곧 주간 첫 날인 일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는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7일 주기를 채택하여 부활의 날을 기념하도록 교회의 전통이 생겨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연중 거행되는 ‘작은 부활 축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의 정점은 미사 성제의 거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미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매 주일을 통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일 미사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Quiz

다음 보기에서 일요일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보기]

안식일 대림 시기 부활 축일 주님의 날 쉬는 날

주보 1월1일 자 정답은 <④ 하늘, 땅> 입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사목 위원장

「성경 속 동식물」 02 이방인에 비유된 개

성경은 개의 무절제한 욕심을 빗대 ‘게걸스러운 개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이사 56,11) 면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불결이나 멸시, 하찮음, 사탄, 위선, 이방인, 거짓교사, 구원받지 못한 이의 비유로 사용됐다. 그렇지만 개는 충직하고 의리가 있는 동물로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썬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보) 310-908-8823
CA Inc.Lic.#O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 1월 한달동안
*조각 케익 2개 사시면 하나공짜
*케익 하나 사시면 \$5 off(쿠폰지참시)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한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빵사-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밑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